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 스커트에 관한 연구

우정임* · 금기숙

홍익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 패션디자인과 교수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와 공존 경향과 함께 21세기에는 엄격한 개별성이 존중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인류 패션사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남성 패션 또한 바야흐로 패션이라는 세계에 가까이 동참하여 적극적이고 개성이 강한 스타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던 스커트가 남성들에게도 착용되고 있으며 거기에 실용성과 기능성을 가미하여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스커트의 정의와 범위를 알아보고 역사 속의 남성 스커트와 착용 방식에 따른 남성 스커트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 스커트를 연구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 스커트의 조형미를 알아보기 위해 남성 스커트가 많이 등장한 2000 S/S~2005S/S의 파리, 밀라노, 뉴욕의 3대 기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남성 스커트를 길이, 유형, 실루엣, 색채 및 색채 대비, 소재, 이미지 등의 조형 요소로 분류하여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길이는 스트리트 렵스(street length)와 미디(midi)의 활용빈도가 높았고 유형은 랩 스커트(wrap skirt)와 킬트 스커트(kilt skirt)가 가장 많이 보였다.

실루엣은 루즈하고 자연스러운 일자라인의 스트레이트(straight) 실루엣이 가장 많이 보였으며 색채는 무채색이 많이 활용된 가운데 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채색 중에는 파란색, 빨간색, 베이지색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색은 없는 것이 가장 많았다. 문양을 사용한 경우에는 체크 패턴(check pattern)을 포함한 기하학 문양이 많이 나타났다. 패션 이미지는 에스닉(ethnic) 이미지와 캐주얼(casual)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형적 분석을 통해 표출된 남성 스

커트의 조형미에는 민족미, 실용미, 혼성미, 현대미, 기타 조형미 등이 있었다.

민족미는 착용방식이나 색상 소재 등 여러 조형 요소들이 이국적이고 전통적인 취향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또한 킬트를 응용한 클래식한 스커트도 민족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거나 응용되어 나타났다.

실용미는 캐주얼 이미지의 스커트로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냈고, 특히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남성 스커트에서도 현대적이고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남성 스커트가 많이 나타났다. 즉 남성 스커트는 단지 개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 기능성, 활동성 등의 실용성을 가지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혼성미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이미지에서 특히 남성성과 여성성이 강하게 대비되어 경계의 구분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며 현대미는 불필요한 것을 최대한으로 제거하여 생략과 절제의 미를 추구하고 착용감이 양호하며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기타 조형미로는 생동미, 자연미 등이 있는데, 생동미는 활동적이고 경쾌하며 해방된 이미지의 디자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미는 인공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이미지로 기존 남성의 이미지에서 한층 더 부드럽고 소박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남성 스커트의 조형성과 조형미를 살펴본 결과, 남성 스커트는 남성 패션에 있어 결코 소외된 것이 아니며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점진적인 남성들의 의식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남성 스커트는 다양한 패션의 흐름 속에서 좀 더 대중화되고 개성화되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남성 패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